

사회·경제·공간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981~2000

박 규 택*

The Change of Everyday's Labor and Leisure Time in South Korea from 1981 to 2000 in terms of Socio-economic and Spatial Perspective.

Kyu-Taeg Park*

요약 :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있어 사람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토대가 되는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기술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는 사회·경제·공간의 관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가 탈산업화됨에 따라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 혹은 예측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직업별, 학력별 그리고 지역과 공간 이동의 측면에서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모든 직업에서 평일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고, 일요일은 기능·작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경제는 저학력 노동보다 고학력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그리고 고학력 집단은 평일에 많은 일을 하고 일요일에 적게 일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지역별 노동시간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사회·경제는 농촌적 성격을 지닌 읍과 면 거주자들보다 도시, 특히 대도시 거주자들의 노동에 보다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평일과 일요일 사람들의 이동시간은 학력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일상생활 활동, 노동과 여가 시간, 탈산업화, 공간 이동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of everyday's labor and leisure time in South Korea during the last two decades in which her economy has been changed from manufacturing-oriented industry to services or technology and knowledge-oriented industry. Generally speaking, the changing patterns of everyday's labor and leisure time in South Korea from 1981 to 2000 are very complex and dynamic. So it is very careful for us to simply assert the fact that everyday's labor time is decreased and everyday's leisure time is increased due to the deindustrialization of a capitalist country. Specifically, the changes of everyday's labor and leisure time in South Korea are varied in terms of socio-economic and spatial perspective. The labor time of all kinds of occupations has been increased at the weekday during the last two decades, but the leisure time of those except technical occupation has been decreased at the weekend. The socio-economy of South Korea after the 1990s became dependent on more educated workers than less ones. Also the more educated people work hard at the weekday, but they get more leisure time at the weekend. In terms of spatial perspectives,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become dependent on the workers in cities, particularly large ones more than those in rural regions because of the rapidly establish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fter the early 1980s. The time of people's spatial movemen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ls of education both at the weekday and the weeken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Key words : Everyday life activity, Labor and leisure time, Deindustrialization, Spatial movement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량 생산과 소비에 기초한 산업 사회가 위기에 직면한 뒤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들, 즉 탈산업화, 지식·정보사회, 서비스산업의 확대, 신경제 등이 논의되었다(Aglietta, 1998; Aoyama and Castells, 2002; Cornwall, 1980; Jorgenson, 2001; Schwartz and Zukin, 1988). 한국 경제도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대량 생산과 수출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서비스업과 기술·정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pkt@bh.knu.ac.kr or kyutaeg07@hanmail.net)

고 있다(강두용, 2002; 권남훈·김종일, 2002; 이기동, 2001; 이효수, 2002; 홍두승·김병조·조동기, 1999).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 구조 전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점의 중심에 일상적 삶의 토대인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설명 혹은 해석과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탈산업화와 지식·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시간은 감소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대되고 또한 자율적인 삶이 확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종희·이연숙, 2002; 안정옥, 2002; 소병철, 2002; Fogel, 1999).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Fogel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미국 가정의 남자 가장의 하루 노동시간은 1880년에 8시간 5분과 1995년에 4시간 7분이었으며, 2040년에 3시간 8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여가시간은 1880년에 1시간 8분과 1995년에 5시간 8분이었으며, 2040년에 7시간 2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Fogel, 1999, 5). 긍정적인 미래 전망과는 달리 20세기 중·후반에 시작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 변화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수립된 삶의 양식을 해체시키면서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 즉 실업의 증가, 불안정 고용 확대, 소득과 정보의 격차, 지역간 불균등 발전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김문조·김종길, 2002; 박규택, 2000; 이종선, 2002; 이효수, 2002; 임석희, 2002; 정이환, 2002).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는 정해진 법칙이나 이론에 따라 그리고 추상적·논리적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회·역사적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상생활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사회·경제의 구조 변화 속에서 일상생활의 토대를 이루는 활동인 노동과 여가가 어떻게·왜 변화되는지를 지리학,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연구되었다(김송미, 1997; 박순호·김은숙, 1998; 이연숙 외, 2002; Bittman and Wajcman, 2000; Elder, 1994; Juster and Stafford, 1991; Pred, 1981; Sullivan and Gurshuny, 2001; Thomas, 1964; Thompson, 1964).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결과물을 축적시켰지만, 노동과 여가를 경험적인 사회·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치밀하게 결부시키지 않고 있다. 지리학은

Hägerstrand에 의해 시작된 시간지리학에 기초하여 노동과 여가 시간을 공간과 관계시켜 연구하고 있지만, 사회·역사적 시간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 않았다. 시간지리학에 기초한 한국의 지리학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한 시점의 설문지 조사를 통한 취업주부 혹은 대학생·아동의 일상생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송미, 1997; 박순호·김은숙, 1998; 박순호, 2002; 이재하, 1985).

본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량생산과 수출에 기초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기술·정보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기반인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회·경제·공간의 관점에서 분석·기술한다.¹⁾ 연구 결과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경제가 탈산업화 혹은 정보·지식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축적시킬 것이며, 나아가 노동과 여가 시간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²⁾

2) 자료 및 연구방법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라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시계열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일상생활의 노동과 여가시간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시점과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김송미, 1997; 김효정·김미라, 2001; 박순호·김은숙, 1998; 이연숙 외, 2002; 이재하, 1985; 이종희·이연숙, 2002; 최남숙·유소이, 2002). 한국인의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에 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자료를 한국방송공사가 '국민생활시간조사'라는 명칭으로 1981년부터 2000년까지 7차례 조사하여 정리해 놓았다.³⁾ 본 연구자는 이 자료가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경제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⁴⁾ 한국방송공사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각 연도별 '국민생활시간조사' 보고서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점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활동시간은 생존을 위한 생활필수시간, 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노동시간은 일, 가사 그리고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계를 의미하며, 본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노동과 일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여가시간은 개인적 교제, 안정·휴식, 취미·오락,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계를 의미한다.⁵⁾ 그리고 각 연도별 '국민생활시간조사' 보고서에 노동과 여가 시간은 피조사자 전체와 행위자 평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행위자 평균시간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특별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경제·공간과 관련된 변수 값이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방법이 이용되었는데, 1980년대 사회·경제·공간 변수들의 값은 1981년, 1985년 그리고 1990년 시간을 평균한 것이며, 1990년대의 값은 1990년, 1995년 그리고 2000년 시간을 평균한 것이다(Spiegel, 1988, 398-400).

2.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 연구의 의의와 논의점

1) 일상생활 활동 연구의 의의

일상적 생활활동이란 구체적인 경험적인 시·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매일 혹은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활동들, 즉 건강유지, 노동 그리고 여가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생활활동에 대하여 인문·사회과학이 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추상적·일반적 관점이 아닌 사회·문화·경제가 역동적으로 실현되는 역사적 시간·지리적 공간과 인간의 인식·행위의 상호 작용 관점에서 답해져야 한다(김복래, 1999; 강수택, 1994; 문기상, 1995; 최종

욱, 1993). 이성과 과학에 기초한 서구의 근대적 사회과학은 거시적 사회·문화·정치·경제 구조, 제도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거대담론에,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일반적 법칙에 관심의 초점을 두면서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미세한 행위들을 부차적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일상적 생활활동에 관심을 가진 인문·사회과학자들은 거시적 사회·정치·경제 구조와 제도가 인간의 일상적 생활 활동과 의식을 규정하거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갈등적인 일상적 생활활동에 의해 구체화되고 나아가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대 사회과학이 관심을 가진 거시적 구조는 자본주의 사회·경제 사상, 조직, 제도 그리고 실천이었다.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활동, 특히 노동과 여가 활동은 자본주의를 유지 혹은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되며, 자본주의 사상과 제도는 소수의 지배계층에 의해(재)생산되어 진다.⁶⁾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일상적 생활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적 의지가 아닌 자본주의 조직과 제도에 의해 수동적으로 실행되며, 또한 시민은 사회·경제·정치 이념과 제도·조직을 형성시키는 과정에 배제 혹은 주변화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활동의 연구자들은 소수의 지배층이 아닌 다수 시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 활동이 사회·역사적 거대 담론에 파묻히거나 자본주의 이념과 제도에 종속 혹은 소외되지 않고 자신들의 자율성과 참여성이 존중되는 사회·경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2)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에 관한 논의

인간은 생존과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생산·소비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의 한 기능으로서의 노동은 인간이 가지는 에너지를 자연에 작용시켜, 그 자연을 변형 가공해 생활에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하에서 특정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은 사회관계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양식을 달리한다(구성열 외, 1999, 603). 즉 자본주의 사

회에 대다수 사람들은 자본가에 고용되어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간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일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 활동 가운데 시장에서 화폐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일이 가사노동이다(김성희, 2002; 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양세정·김태은, 2002). 김성희(2002)는 주부에 의해 주로 행해지는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부는 보수를 받고 일하지 않으며 가시적으로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주부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위임하거나 시장상품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소득을 창출하는 임금노동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가사노동은 노동이 아니라는 편견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김성희, 2002, 14).

생활시간 조사는 가사노동, 쇼핑하기, 서비스 등의 무보수 가계노동시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포괄적인 국민계정을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995년 베이징 여성국제회의에서는 비시장 생산에 소요된 노동시간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활용 조사의 실시를 모든 나라에 적극 권장하였다(손애리, 2000, 138). 본 연구에서 노동은 일, 가사 그리고 통근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정보·지식업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955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의 직업구성의 변화를 분석한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는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그리고 서비스직 종사자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에 근거하여 한국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서비스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⁸⁾ 192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일본을 포함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⁹⁾의 공업과 서비스업 고용 구조의 변화를 보면, 공업의 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서비스업의 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oyama and Castells,

2002, 139-140). 예를 들면, 1970년 독일과 미국의 공업과 서비스업 고용 비율은 51.4:48.6 그리고 34.0:66.0이었고, 2000년 양국의 비율은 33.6:66.4 그리고 22.3:77.7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경제의 탈산업화에 따르는 시민들의 노동과 여가 활동 시간의 구조 변화,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의한 자유시간의 증가로 여가가 일상생활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가는 시간과 활동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일상적 시간 관점에서의 여가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생존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활동적 측면에서 여가는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여가는 활동과 시간의 관점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즉 여가시간은 개인적 교제, 안정·휴식, 취미·오락,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계를 의미한다.

일상생활 활동 시간배분(time allocation)은 경제학에서 생산·소비 그리고 복지와 관계시켜 많이 연구되었다(Becker, 1965; Biddle and Hamermesh, 1990; Fogel, 1999; Gronau, 1973; Hamermesh, 1998; Juster and Stafford, 1991). 가계의 희소자원인 시간을 논의한 Becker(1965)의 가계생산이론에 의하면, 시장에서 구입된 재화·용역과 노동시간이 결합되어 가계 또는 가족구성원의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생산물이 창출된다고 보았다(양세정·김태은, 2002, 88, 최남숙·유소이, 2002, 4). Becker의 연구 이후 시간배분은 여러 분야, 즉 사회학, 인류학, 가정경제학 등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이종희·이연숙, 2002; 최남숙·유소이, 2002; Gershuny, 2000; Minga-Klevanna, 1980; Sullivan and Gershuny, 2001; Szalai, 1972). 오늘날 시간 배분은 노동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뿐만 아니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Juster and Stafford(1991)는 시간 배분 연구들의 결과물, 모형 그리고 측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면서 시간배분 자료의 효용성을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전통적 경제계정체계(economic accounting system)가 시장 기구의 밖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생산 활

동들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배분 자료는 새로운 사회·경제계정체계의 수립을 가능케 하고, 미시적으로 가구 구성원들의 일상적 활동을 기술하고 행위 모형을 구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Juster and Stafford, 1991, 473-474). 현대 경제학에서 거대한 자원이 노동과 여가의 양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된 반면 노동과 여가의 일상적·주기적 시간활용과 유형 그리고 변화 나아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Hamermesh, 1998, 325).

시간지리학(Time-geography)은 경제 이론 혹은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가정하는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의 인간들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능력, 결합 그리고 권위 제약 속에서 일상적 혹은 주기적 생활활동을 통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조화시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Hägerstrand, 1970, 1989). 시간지리학은 지역 혹은 공간 과학의 중심 대상인 물리적 공간과 조직에 구체적인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을 결합시켜 이론적 혹은 경험적 연구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추구만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간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 왔다(이윤호, 2000; 이철우·김은숙, 1997; Hägerstrand, 1970). 또한 시간지리학은 1980년대 이후 서구 지리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역사 공간의 능동성 혹은 정치성, 즉 역사적 시간을 통해 사회·문화·정치·경제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져 유지되는 사회·역사적 공간은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의식과 실천 그리고 공간 재조직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을 수용하여 연구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인간의 일상적 혹은 주기적 생활활동을 통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은 조직·구조화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시·공간 조직·구조는 현재와 미래 인간의 의식과 일상생활 활동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상적 혹은 주기적 생활활동에 의한 시·공간 조직·구조화와 인간의 의식과 행위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 시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지리학에서 시간지리학에 기초를 둔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며, 연구 주제들은 이론·개념과

연구동향에 그리고 특정 집단, 즉 대학생, 주부 그리고 초등학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미영, 1983; 김송미, 1997; 박순호, 2002; 박순호·김은숙, 1999; 이윤호, 2000; 이재하, 1985; 이창운, 1982; 이철우·김은숙, 1997; 전경숙, 1989).

3. 사회·경제적 관점에 의한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 성별에 따른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전체적으로 1981년 이후 평일 노동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후 증가하였고, 일요일 노동시간은 1990년 초반까지 감소한 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표 1). 1981년에 비해 2000년 평일 노동시간은 1시간 56분이 늘어난 반면 일요일 노동시간은 9분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평일과 일요일 노동시간의 차이는 1981년에 1시간 22분이었지만 2000년에는 3시간 27분으로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자의 평일 노동시간은 1981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두 시점의 차이는 3시간 5분이었다. 평일과는 달리 일요일의 노동시간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다. 1981년에 비해 2000년에 남자들은 평일과 일요일에 3시간 5분과 54분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평일 노동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뒤 증가하였으며, 일요일은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한 뒤 약간 증가하였다. 1981년에 비해 2000년 여자들은 평일에 57분 더 일한 반면 일요일에 52분 적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남자와 여자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1981년에 여자가 남자보다 8분 더 일한 반면 2000년에 남자가 여자보다 2시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노동시간을 보면, 1981년에 여자가 남자보다 52분 더 일한 반면 2000년에 남자가 여자보다 54분을 더 일하였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 평일과 일요일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평일 여가시간의 변화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 반면 일요일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평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 차이는 1981년에 2시간,

표 1. 성별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981-2000

(단위: 시, 분)

연도	남자				여자				남녀차이			
	노동	여가	총시간	일요일	노동	여가	총시간	일요일	노동	여가	총시간	일요일
1981	6.37	4.56	5.15	6.56	6.32	5.04	4.45	7.35	6.40	4.48	5.37	6.19
					-0.05*	0.08	-0.30	0.38	0.03	-0.08	0.22	-0.37
1985	6.28	5.30	4.39	6.56	6.35	5.40	4.19	7.30	6.21	5.21	4.55	6.23
					0.07	0.10	-0.20	0.34	-0.07	-0.09	0.16	-0.33
1990	7.02	4.47	4.38	6.58	7.31	4.37	4.56	7.13	6.41	4.56	4.28	6.44
					0.29	-0.10	0.18	0.15	-0.21	0.09	-0.10	-0.18
1995	7.57	5.17	4.47	7.36	8.26	5.05	4.50	7.59	7.32	5.28	4.44	7.13
					0.29	-0.12	0.03	0.23	-0.25	0.11	-0.03	-0.23
2000	8.33	5.05	5.06	7.37	9.37	4.31	5.39	8.01	7.37	5.37	4.45	7.15
					1.04	-0.34	0.33	0.24	-0.56	0.32	-0.21	-0.22

* 전체와 남자·여자의 노동과 여가 시간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1990년에 2시간 11분 그리고 2000년에 2시간 32분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평일에 일하고 일요일에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한 주일의 노동과 여가시간 구조를 뚜렷하게 수립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자의 평일 여가시간은 1981년에 비해 2000년에 35분 감소한 반면 일요일은 26분 증가하였고, 여자의 여가시간은 평일과 일요일에 26분과 56분이 각각 증가하였다. 평일 남자와 여자의 여가시간을 비교하면, 1981년에 남자가 여자보다 16분 더 여가시간을 가진 반면에 2000년에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5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졌다. 1981년과 2000년 일요일 남자와 여자의 여가시간을 비교하면, 남자가 1시간 16분과 46분의 여가시간을 더 가졌다. 지난 20년간 일요일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평일에 여자가 남자보

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1980년대 평일과 일요일에 6시간 42분과 4시간 51분을, 1990년대는 7시간 51분과 4시간 40분을 각각 일했다(표 2). 따라서 1990년대 사람들은 1980년대에 비해 평일에 1시간 9분을 더 일한 반면 일요일에는 11분 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세부적으로, 1980년대 남자는 평일에 여자보다 19분을 더 일했지만 일요일에는 20분 덜 일했다. 그리고 1990년대 남자는 평일과 일요일에 여자보다 54분과 29분을 더 일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평일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1990년대 보다 많은 일을 했으며, 증가의 폭은 남자(1시간 24분)가 여자(43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일요일 노동시간은 28분 증가하였지만, 여자의 노동시간은 21분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사람들의

표 2. 성별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단위: 시, 분)

연도	남자				여자				남녀차이							
	노동	여가	총시간	일요일	노동	여가	총시간	일요일	노동	여가	총시간	일요일				
1980년대*	6.42	5.04	4.51	6.57	6.53	5.07	4.40	7.26	6.34	5.02	5.00	6.29	0.19	0.05	-0.20	0.57
1990년대*	7.51	5.03	4.50	7.24	8.11	4.44	5.08	7.44	7.17	5.20	4.39	7.04	0.54	-0.36	0.29	0.40
증감	1.09	-0.01	-0.01	0.27	1.24	-0.23	0.28	0.18	0.43	0.18	-0.21	0.35	0.35	-0.31	0.09	1.37

* 1980년대 시간은 표1에 표시된 1981년, 1985년 그리고 1990년 시간의 평균을 그리고 1990년대 시간은 1990년, 1995년 그리고 2000년 시간의 평균을 나타낸다.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일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일요일에는 27분이 증가하였다. 남자의 평일 여가시간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23분이 감소한 반면 일요일에는 18분이 증가하였다. 여자의 여가시간은 평일과 일요일에 43분과 35분씩 증가하였다. 1980년대 남자는 평일과 일요일에 여자보다 5분과 20분의 여가시간을 더 가졌다. 그리고 1990년대 평일에 여자는 남자보다 36분의 여가시간을 더 가진 반면 일요일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40분의 여가시간을 더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에 따른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의 평일 노동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감소한 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3). 1981년과 2000년의 평일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판매·서비스직은 33분, 기능·작업직은 17분 그리고 사무·기술직은 52분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림·어업직의 노동시간은 29분 감소하였다. 일요일의 노동시간은 기능·작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농림·어업직에서 가장 큰 폭인 54분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에서 51분이 감소하였다. 직업별 평일 노동시간의 변화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작업직과 판매·서비스직의 노동시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에 감소하다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무·기술직의 평일 노동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감소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직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사무·기술직의 평일 노동시간은 1981년에 비해 2000년에 52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직은 29분 감소하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평일 노동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면, 기능·작업직과 판매·서비스직은 평일과 동일하게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에 감소하다 후반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사무·기술직의 일요일 노동시간은 1990년대 중반에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인 뒤 감소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일요일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판매·

서비스직과 기능·작업직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평일 여가시간의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직은 1990년 초반까지 약간 감소한 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981년에 비해 2000년에 54분이 증가하였다. 판매·서비스직의 평일 여가시간은 1990년 초반까지 상당한 정도(1시간 9분)로 감소한 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기능·작업직과 사무·기술직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한 반면 중반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IMF 경제위기 상황이 포함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농림·어업직의 평일 여가시간은 증가하였지만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그리고 사무·기술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기술직에서 가장 큰 감소(1시간 6분)를 보였다.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기능·작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1981년에 비해 2000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직이 59분으로 가장 크게, 판매·서비스직이 10분으로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 기능·작업직의 일요일 여가시간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으며, 1981년에 비해 2000년의 여가시간은 15분이 감소하였다.

1980년대 평일의 노동시간은 농림·어업직이 8시간 22분으로 가장 짧고, 기능·작업직이 9시간 53분으로 가장 길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4시간 2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에 판매·서비스직이 7시간 4분으로 가장 길었다(표 4). 1990년대 평일의 노동시간은 1980년대와 동일하게 농림·어업직이 8시간 25분으로 여전히 가장 짧은 반면 기능·작업직이 10시간 11분으로 가장 길었다. 일요일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3시간 56분으로 가장 짧고, 농림·어업직이 7시간 12분으로 가장 길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면, 모든 직업에서 평일은 증가하였고 일요일은 기능·작업직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였다. 평일 노동시간의 변화는 사무·기술직에서 30분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직에서 3분으로 가장 적은 증가를 보였다. 일요일 노동시간의 변화는 평일보다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기능·작업직에서 8분이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직에서 11분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표 3. 직업별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 1981-2000

(단위: 시, 분)

연도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농림·어업직	평균	일요일	평일	차이	일요일	평일	차이	일요일	평일	차이	일요일	평일	차이
1981	8.35	5.04	7.49	5.23	9.47	5.22	7.19	6.44	9.57	5.03	6.08	7.20	9.24	4.44	4.08	7.58	
1985	7.56	5.05	6.56	5.36	9.43	5.09	6.46	6.22	9.31	5.10	6.04	7.09	9.08	5.10	4.06	7.58	
1990	8.36	4.25	7.25	5.12	10.05	4.13	7.07	5.25	10.10	4.19	6.08	6.40	9.14	4.28	3.52	7.56	
1995	8.32	5.11	7.17	5.47	9.55	4.59	6.22	6.45	10.08	4.44	5.55	7.26	9.46	4.41	4.07	8.02	
2000	8.06	5.58	6.55	6.22	10.20	4.17	6.28	6.54	10.14	4.21	6.42	7.05	10.16	3.37	3.50	8.16	

자료: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평일과 일요일의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면,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그리고 사무·기술직이 농림·어업직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평일 여가시간은 판매·서비스직이 4시간 55분으로 가장 길고, 사무·기술직이 4시간 47분으로 가장 짧아 직업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사무·기술직이 7시간 57분으로 가장 길고, 농림·어업직이 5시간 24분으로 가장 짧아 직업간에 상당한 차이(2시간 33분)를 보였다. 그리고 일요일 여가시간은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그리고 사무·기술직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1990년대 평일 여가시간은 농림·어업직이 5시간 11분으로 가장 길고, 사무·기술직이 4시간 15분으로 가장 짧았다. 1990년대 일요일 여가시간은 1980년대와 동일하게 사무·기술직이 8시간 5분으로 가장 긴 반면에 농림·어업직이 5시간 47분으로 가장 짧다. 일반적으로 사무·기술직에 있어서 여가시간은 다른 직업에 비해 평일에 가장 짧은 반면에 일요일에 가장 길었다. 그러나 농림·어업직은 평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그리고 사무·

기술직의 평일 여가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무·기술직이 가장 긴 반면에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평일 여가시간은 농림·어업직에서 20분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일요일 여가시간은 모든 직업에서 증가하였는데, 증가의 정도는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3) 학력에 따른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

지난 20년간 학력별 평일의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1981년에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일했고 대학교 졸업자는 가장 적게 일했다. 이와 반대로 2000년에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일했으며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적게 일을 하였다(표 5). 1981년에 비해 2000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평일 노동시간은 1시간 59분이 감소한 반면 대학교 졸업자는 59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노동시간의 경우, 지난 20년간 저학력자들이 더 많은 일을 했고 고학력자들은 적게 일을 하였다. 그러나

표 4. 직업별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980년대~1990년대

(단위: 시, 분)

연도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사무·기술직	농림·어업직	평균	일요일	평일	차이	일요일	평일	차이	일요일	평일	차이	일요일	평일	차이
1980년대	8.22	4.51	7.23	5.24	9.52	4.55	7.04	6.10	9.53	4.51	6.07	7.03	9.15	4.47	4.02	7.57	
1990년대	8.25	5.11	7.12	5.47	10.07	4.30	6.56	6.21	10.11	4.28	6.15	7.14	9.45	4.15	3.56	8.05	
증감	0.03	0.20	-0.11	0.23	0.15	-0.25	-0.08	0.11	0.18	-0.23	0.08	0.11	0.30	-0.32	-0.06	0.08	

표 5. 학력별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981~2000

(단위: 시, 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대학원 미졸업		대학원 미졸업		대학원 미졸업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1981	9.17	4.56	7.58	5.19	8.52	5.31	7.04	5.59	8.32	5.46	5.18	7.32	8.26	5.46	4.28	8.14
1985	8.24	5.07	7.02	5.27	8.19	5.29	6.19	6.24	8.11	6.14	5.15	7.28	7.52	5.57	3.48	8.02
1990	8.36	5.11	6.46	5.38	9.02	4.51	6.31	6.01	8.41	5.04	5.10	6.57	8.40	4.53	4.26	7.38
1995	8.19	5.51	6.31	6.38	9.25	5.14	6.29	6.25	8.58	5.29	5.20	7.25	9.03	5.17	4.15	8.18
2000	7.18	7.07	5.40	7.48	8.11	6.29	6.06	7.33	9.09	5.09	5.37	7.15	9.25	4.48	4.45	7.46

자료: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1981년과 2000년 일요일에 가장 많은 일을 한 집단과 정반대 집단간의 노동시간 차이는 3시간 30분에서 1시간 21분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평일 노동시간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중반까지 감소한 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초등학교의 평일 노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증가하는 상이한 경향을 보였지만 중반 이후 모두 감소하였다. 1981년과 2000년 평일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는 1시간 59분과 41분씩 각각 감소하였다. 일요일 노동시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 집단에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감소의 폭은 초등학교 졸업자(2시간 18분)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의 평일 노동시간은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IMF 경제위기 상황이 포함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평일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경우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81년에 비해 2000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는 37분과 59분을 더 일하였다. 일요일 노동시간의 변화는 평일보다 복잡하게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까지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초등학교 졸업자의 평일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한 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981년에 비해 2000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평일 여가시간은 2시간 11분과 5분씩 각각 증가하였다.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평일과 유사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생 모두에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의 평일 여가시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각각 중반까지는 증가한 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1981년에 비해 2000년 고등학교와 대학교 평일의 여가시간은 23분과 58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일요일 고등학교와 대학

표 6. 학력별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980년대~1990년대

(단위: 시, 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평일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1980년대	8.46	5.07	7.15	5.28	8.44	5.17	6.38	6.08	8.28	5.41	5.14	7.19	8.19	5.32	4.01	7.58
1990년대	8.04	5.43	6.19	6.41	8.53	5.11	6.22	6.40	8.56	5.14	5.22	7.12	9.03	4.59	4.29	7.54
증감	-0.42	0.36	-0.56	1.13	0.11	-0.06	-0.16	0.32	0.28	-0.27	0.08	-0.07	0.44	-0.33	-0.28	-0.04

교 졸업자의 여가시간은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한 뒤 중반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였다.

1980년대 평일에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일을 했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졸업자 순으로 많은 일을 했다. 평일에 가장 많이 일한 초등학교 졸업자와 가장 적게 일한 대학교 졸업자와의 차이는 27분이었다(표 6). 이와 정반대로 1990년대는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순으로 일을 많이 했으며, 가장 많이 일한 집단과 반대 집단간의 차이는 59분으로 1980년대 비해 증가하였다. 평일의 노동시간 변화와는 달리 일요일 노동시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일요일에 가장 많이 일한 집단과 반대 집단간의 차이는 1980년대에 3시간 14분 그리고 1990년대에 1시간 50분으로 감소하였다. 각 학력별 1980년대와 1990년대 평일의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42분이 감소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학교가 44분의 증가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일요일 노동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감소한 반면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학력별 평일과 일요일 노동시간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경제는 저학력 노동보다 고학력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그리고 고학력 집단은 평일에 많은 일을 하고 일요일에 적게 일하는 구조를 형성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 평일 여가시간은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순으로 많은데 반하여 1990년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요일 여가시간의 변화를 보면, 고학력 집단이 저학력 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가졌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1980년대 2시간 30분, 1990년대에 1시간 14분으로 감소하였다. 각 학력별 평일 여가시간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감소는 대학교 졸업자 집단에서 일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여가시간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지난 20년간 평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에서 증가하였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공간적 관점에 따른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 지역별 평일의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전국적 차원에서 평일의 노동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감소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81년에 비해 2000년 한국 사람들은 평일에 1시간 56분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지난 20년간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 거주자들의 평일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읍과 면의 거주자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감소 추세

표 7. 지역별 평일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 1981~2000 (단위: 시, 분)

연도	서울		직할시/광역시		시		읍		면		전국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노동	여가
1981	6.37	4.56	6.32	5.19	6.31	5.06	6.23	5.07	6.42	4.56	6.47	4.28
			-0.05*	0.23	-0.06	0.10	-0.14	0.11	0.05	0.00	0.10	-0.28
1985	6.28	5.30	6.34	6.01	6.34	5.38	6.28	5.41	5.59	5.16	6.31	5.02
			0.06	0.31	0.06	0.08	0.00	0.11	-0.29	-0.14	0.03	-0.28
1990	7.02	4.47	7.22	5.08	6.41	4.51	7.14	4.35	7.01	4.47	6.55	4.29
			0.20	0.21	-0.21	0.04	0.12	-0.12	-0.01	0.00	-0.07	-0.18
1995	7.57	5.17	8.08	5.08	8.08	5.25	7.47	5.23	7.53	5.07	7.46	5.13
			0.11	-0.09	0.11	0.08	-0.10	0.06	-0.04	-0.10	-0.11	-0.04
2000	8.33	5.05	8.50	5.00	8.35	5.03	8.28	5.02	8.50	5.07	7.39	5.46
			0.17	0.05	0.02	-0.02	-0.05	-0.03	0.17	0.02	-0.54	0.41

* 전국과 지역의 노동과 여가시간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표 8. 지역별 평일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단위: 시, 분)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시	읍	면	전국	읍	면	전국	읍	면
1980년대	6.49	5.29	6.35	5.12	6.42	5.07	6.34	5.00	6.44	4.40	
1990년대	8.07	5.05	7.48	5.06	7.50	5.00	7.55	5.00	7.27	5.09	
증감	1.18	-0.24	1.13	-0.06	1.08	-0.07	1.21	0.00	0.43	0.29	

를 보인 후 증가하였다. 1981년에 비해 2000년 서울특별시의 노동시간은 가장 큰 증가(2시간 18분)를 보인 반면 면 거주자는 51분으로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 1981년 전국과 지역간의 평일 노동시간의 차이는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에서 전국 평균 이하인 반면 읍과 면에서 전국 평균 이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2000년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광역시에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시와 면에서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시 규모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그리고 읍과 면의 사람들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다. 이와 반대로 1980년대 중반이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광역시 거주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그리고 읍과 면 거주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일했다. 지난 20년간 지역별 평일 노동시간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사회·경제는 농촌적 성격을 지닌 읍과 면 거주자들보다 도시, 특히 대도시 거주자들의 노동에 보다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전국적 규모에서 평일 여가시간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1981년에 비해 2000년 여가시간은 9분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모든 지역에서 평일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읍과 면의 여가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의 여가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모든 지역에서 평일 여가시간이 감소 추세를 보인 후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1990년 초반이후 서울특별시의 평일 여가시간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면의 여가시간은 증가하였으며,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의 여가시간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

한 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1981년과 2000년의 평일 여가시간의 차이를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에서 감소한 반면 읍과 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모든 지역에서 평일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읍의 노동시간이 가장 큰 증가를 그리고 면의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증가를 보였다(표 8). 시 지역들 중에서도 규모별, 즉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 순으로 평일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 노동을 하였고, 면 거주자들은 1980년대에 많은 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1990년대에 가장 적은 노동을 하였다.

지역별 평일의 여가시간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그리고 시 지역에서 감소하였고, 읍과 면 지역에서 정체 혹은 증가를 하였다. 여가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특별시(24분)이며, 이와 반대로 증가 현상을 보인 유일한 지역은 면(29분)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평일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에서 정반대의 현상, 즉 노동시간은 증가한 반면 여가시간은 감소하였고, 읍과 면, 특히 면에서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동시에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에 의존하는 전통 지역과는 달리 산업화에 의해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 노동과 여가 시간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지역별 일요일의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전국의 일요일 노동시간은 1981년 이후부터 1990년까지 감소한 뒤 증가하였지만, 2000년일요일 노동시간은 1981년에 비해 9분이 감소하였다(표 9). 1981년도 일요일에는 면 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시

표 9. 지역별 일요일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 1981~2000 (단위: 시, 분)

연도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시	읍	면	전국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시	읍	면	전국
1981	5.15	6.56	3.58	7.44	4.17	7.40	4.48	7.12	5.43	6.40	6.22	5.59
			-1.17*	0.48	-0.58	0.44	-0.27	0.16	0.28	-0.16	1.07	-0.57
1985	4.39	6.56	3.34	7.35	4.10	7.23	4.04	7.09	4.56	6.31	5.43	6.14
			-1.05	0.39	-0.29	0.27	-0.35	0.13	0.17	-0.25	1.04	-0.42
1990	4.38	6.58	3.57	7.16	4.06	7.20	4.47	6.47	4.55	6.51	5.24	6.29
			-0.41	0.18	-0.32	0.22	0.09	-0.01	0.17	-0.07	0.46	-0.29
1995	4.47	7.36	4.24	7.35	4.29	7.52	4.43	7.53	5.23	7.07	5.24	7.00
			-0.23	-0.01	-0.18	0.16	-0.04	0.17	0.36	-0.29	0.37	-0.36
2000	5.06	7.37	4.49	7.46	5.13	7.31	4.53	7.40	6.26	7.28	5.26	7.25
			-0.17	0.09	0.07	-0.06	-0.13	0.03	1.11	-0.09	0.20	-0.12

* 전국과 지역의 노동과 여가시간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간 노동(6시간 22분)을 한 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은 가장 적은 시간 노동(3시간 58분)을 하였다. 2000년에도 여전히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 가장 적은 노동(4시간 49분)을 하였고, 읍 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노동(6시간 26분)을 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모든 지역의 노동시간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읍과 면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일요일 노동시간은 서울특별시에서 증가하였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는 감소와 증가의 복잡한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에도 서울특별시와 직할시/광역시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읍과 면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지역에서 노동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읍의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1시간 3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읍과 면 거주자들은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 거주자에 비해 일요일에 보다 많은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여가시간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의 여가시간은 1981년에 비해 41분이 증가하였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의 여가시간은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 서울특별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직할시/광역시와 시는 증가한 뒤 감소하였다. 읍의 여가시간은 1980년대 중반까지 약간의 감소 현상을 보인 후 증가하였고, 면의 여가시간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그리고 시의 여가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읍과 면의 여가시간은 낮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 일요일에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가진 반면 면 거주자들이 가장 적은 여가시간을 가졌으며, 두 지역간의 차이는 1981년 1시간 45분에서 2000년 21분으로 좁혀졌다.

1980년대 일요일 노동시간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짧았고, 다음으로 직할시/광역시, 시, 읍, 면 순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와 면의 노동시간 차이는 2시간이었다(표 10). 1990년대에도 서울특별시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았고, 읍의 노동시간이 가

표 10. 지역별 일요일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단위: 시, 분)

연도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시	읍	면	전국	서울특별시	직할시/광역시	시	읍	면	전국
1980년대	3.50	7.32	4.11	7.28	4.33	6.43	5.11	6.41	5.50	6.14		
1990년대	4.23	7.32	4.36	7.34	4.48	7.27	5.35	7.09	5.25	6.58		
증감	0.33	0.00	0.25	0.06	0.15	0.43	0.24	0.28	-0.25	0.44		

장 길었으며, 두 지역간 차이는 1시간 2분으로 1980년대에 비해 감소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요일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많은 33분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면의 일요일 노동시간은 1980년대에 비해 25분이 감소하였다.

1980년대 일요일 여가시간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긴 반면 면이 가장 짧았으며, 두 지역간의 차이는 1시간 18분이었다. 1990년대 직할시/광역시 일요일 여가시간이 가장 길게 그리고 면의 일요일 여가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1시간 26분으로 198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요일 여가시간을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정체 혹은 증가하였으며, 시, 읍 그리고 면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광역시에 비해 증가를 보였다.

3) 성별·학력별 일상적 공간 이동시간의 변화

전체적으로 지난 20년간 사람들의 이동시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이동하였다(표 11). 남성의 평일 이동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여성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85년 남성의 평일 이동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6분이 길었지만 여성은 5분이 짧았다. 1981년의 평일 이동시간은 남성이 1시간 31분 그리고 여성이 1시간 22분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9분이었다. 2000년의 남성과 여성의 평일 이동시간은 1981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8분이었다. 일요일

사람들의 이동시간도 평일과 같이 지난 20년 동안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이동하였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많이 이동하였으며, 차이는 1981년에 7분 그리고 2000년에 8분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남성의 일요일 이동시간은 평일과 같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여성은 낮았다.

1980년대 사람들은 평일과 일요일 이동에 1시간 27분과 1시간 35분을 사용하였으며, 남성의 이동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여성의 이동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표 12). 평일과 일요일 남성의 이동시간은 여성보다 길었으며, 차이는 7분과 4분이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평일의 이동시간이 일요일의 이동시간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평일과 일요일 이동시간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크게 나타났다. 1990년대 평일과 일요일 남성의 이동시간은 여성보다 길었으며, 차이는 6분과 2분으로 1980년대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도 남성과 여성 모두 평일의 이동시간이 일요일의 이동시간보다 짧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사람들의 이동시간은 1980년대에 비해 평일에는 감소하였고, 일요일에는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 남성의 이동시간은 1980년에 비해 평일과 일요일 모두 감소하였고, 여성의 이동시간은 평일에 감소한 반면에 일요일에 증가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평일과 일요일의 이동시간은 학력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평일과 일요일에 이동시간이 길었다.

표 11. 성별 공간이동 시간의 변화, 1981~2000 (단위: 시, 분)

	전국인		남성		여성	
	평일	일요일	평일	일요일	평일	일요일
1981	1.26	1.33	1.31	1.37	1.22	1.29
			0.05	0.04	-0.04	-0.04
1985	1.32	1.37	1.38	1.38	1.27	1.34
			0.06	0.01	-0.05	-0.03
1990	1.24	1.36	1.25	1.37	1.22	1.35
			0.01	0.01	-0.02	-0.01
1995	1.26	1.37	1.29	1.38	1.23	1.37
			0.03	0.01	-0.03	0.00
2000	1.25	1.33	1.29	1.34	1.21	1.31
			0.04	0.01	-0.04	-0.02

자료: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표 12. 성별 공간이동 시간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단위: 시, 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80년대	1.27	1.35	1.31	1.37	1.24	1.33
1990년대	1.25	1.35	1.28	1.36	1.37	1.34
증감	-0.02	0.00	-0.03	-0.01	0.13	0.01

1981년 평일과 일요일 모두 초등학교 졸업자의 이동시간이 가장 짧은 반면에 대학교 졸업자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었다(표 13). 그리고 1981년 모든 학력의 평일 이동시간은 일요일보다 짧았으며, 평일과 일요일의 차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2000년에도 평일과 일요일 모두 초등학교 졸업자의 이동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대학교 졸업자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두 집단간의 차이는 198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1981년과 2000년 평일과 일요일의 이동시간을 비교하면, 모든 학력에 있어 이동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평일에 초등학교 졸업자가 12분 그리고 일요일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16분으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1980년대 평일에 대학교 졸업자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가 가장 짧았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7분이었다(표 14). 일요일도 대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이동시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보다 길었다. 1990년대 평일과 일요일 이동시간의 길이는 학력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일요일에 이동시간이 가장 긴 대학교 졸업자와 가장 짧은 초등학교 졸업자간의 차이는 20분과 19분이었다. 1990년대 학력별 평일 이동시간은 대학교 졸업자를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1980년대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일요일의 이동시간도 중학교 졸업자를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감소 현상을 보였다.

5. 결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는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되면서 서비스와 지식·정보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이전 시대에 수립된 일상생활 활동, 특히 노동과 여가 시간배분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탈산업화 사회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을 증가할 것이며 또한 자율적인

표 13. 학력별 공간이동 시간의 변화, 1981~2000

(단위: 시, 분)

	초등	중등	고등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1981	1.25	1.32	1.28	1.29	1.32	1.49	1.37	1.47
1985	1.33	1.35	1.34	1.43	1.39	1.45	1.38	1.53
1990	1.25	1.44	1.23	1.36	1.28	1.49	1.31	1.50
1995	1.09	1.24	1.29	1.40	1.25	1.45	1.38	1.55
2000	1.13	1.22	1.19	1.34	1.24	1.33	1.28	1.43

자료: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표 14. 학력별 공간이동 시간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단위: 시, 분)

	초등	중등	고등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1980년대	1.28	1.37	1.28	1.36	1.33	1.48	1.35	1.50
1990년대	1.16	1.30	1.24	1.37	1.26	1.42	1.36	1.49
증감	-0.12	-0.07	-0.04	0.01	-0.07	-0.06	0.01	-0.01

삶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1980년대 후반이후 탈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사회·경제가 변화되고 있는데,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량 생산과 수출에 기초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기술·정보 산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기반인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회·경제·공간의 관점에서 분석·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설명(혹은 해석)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자료를 충실하게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방송공사가 '국민생활시간조사'라는 명칭으로 1981년부터 2000년까지 7차례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특별한 통계적 방법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방법이 이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은 사회·경제·공간의 측면에서 대단히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경제가 탈산업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상생활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노동과 여가 시간은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 시간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 혹은 예측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래에 세부적 변수의 관점에서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평일과 일요일의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평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 한 주일의 노동과 여가 시간 구조를 뚜렷하게 수립하였다. 성별에 따른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1980년대 남자는 평일에 여자보다 더 일했지만 일요일에는 덜 일했으며, 1990년대 남자는 평일과 일요일 모두 여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 1980년대 남자는 평일과 일요일에 여자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졌고,

1990년대 평일에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진 반면 일요일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졌다.

둘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를 보면, 모든 직업에서 평일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고, 일요일은 기능·작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감소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판매·서비스직, 기능·작업직 그리고 사무·기술직의 평일 여가시간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사무·기술직이 가장 긴 반면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여가시간은 모든 직업에서 증가하였는데, 증가의 정도는 농업·어업직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셋째, 1980년대 평일에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일을 했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졸업자 순으로 많은 일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0년대는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순으로 일을 많이 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경제는 저학력 노동보다 고학력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그리고 고학력 집단은 평일에 많은 일을 하고 일요일에 적게 일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지난 20년간 평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 집단에서 증가하였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지난 20년간 지역별 노동시간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사회·경제는 농촌적 성격을 지닌 읍과 면 거주자들보다 도시, 특히 대도시 거주자들의 노동에 보다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농업에 의존하는 전통 지역과는 달리 산업화에 의해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 노동과 여가 시간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지난 20년 동안 평일과 일요일 사람들의 이동시간은 학력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평일과 일요일에 이동시간이 길었고 낮은 학력의 소지자들은 이동시간이 짧았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일상적 생활활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연구

는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사회에 있어 노동과 여가 시간이 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사회·경제 변화와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를 치밀하게 결합시키지 못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에 관심이 증가될 미래에 노동과 여가 활동 유형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註

- 1)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는 성, 직업 그리고 학력에 의해 그리고 공간은 지역과 공간이동의 관점에 구체화된다.
- 2) 생활시간조사는 ①국민경제 파악 및 활용, ②노동력 분석, ③사회변화의 파악 및 대처, ④삶의 질 파악, ⑤여성 삶 파악 그리고 ⑥여가 생활 및 이동 정보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손애리, 2000, 138-140).
- 3) 정부 혹은 연구소 차원에서 시간활용연구는 미국(1920), 러시아(1924), 영국(1938) 등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1960년부터 NHK에 의해, 1976년부터는 통계국에 의해 대규모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30여개국 이상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손애리, 2000, 136-137).
- 4) 한국 정부차원에서 생활시간조사가 1999년에 전국 10세 이상 약 43,00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통계청, 2000). 이 조사는 전국적 규모의 시간조사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도 인식에 근거하여 1997년에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한 뒤 1999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손애리, 2000, 137-138). 일상생활 활동시간에 대한 정부조사의 결과는 한국방송공사의 조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상이한 행동 분류체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5) 200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과 PC통신과 관련된 노동과 여가 시간이 새롭게 첨부되었다. 따라서 2000년의 노동과 여가 시간의 개념은 이전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6) 근대과학이 수립되는 18세기 문화의 관점에서 엘리트와 민중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었다. "전형적인 엘리트의 시각을 반영하는 18세기 도덕 관찰자(observateurs moraux)에게, 민중 문화는 그야말로 문화의 야만적인 방치상태에 불과했다. 민중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세속적이고 비속한 그 무엇이 깃들여져 있으며, 또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있다"(김복래, 1999, 35).
- 7) 박승규·김일기(2001)는 학습자들의 생활세계 관점에서 지리 교과서 구성을 논의하였다.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은 본질(essence)에 우선하는 학습자들의

실존(existence)의 표현으로 학습자들이 관계 맺고 있는 역사와 자연,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된 삶이며, 학습자들의 가치와 신념이 내재되어 있는 총체적인 경험세계인 것이다"(박승규·김일기, 2001, 2).

- 8)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 조사에 의하면, "1990-95년중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농림수산·광공과 제조업 중 소비재업종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탈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서비스경제로 진입하게 되었다"(한국은행, 1998, 39).
- 9) 조사·비교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미국이다.

文獻

- 강두용, 2002, 정보화와 한국 경제성장 및 생산성 변화, 국제경제연구, 8(2), 211-243.
- 강수택, 1994, 일상생활이론의 비교연구: 사회학적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8, 85-118.
- 김미영, 1983, 가정주부의 일상적 공간행동과 시간,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문준·김종길, 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4), 123-155.
- 김복래, 1999, 아날학과와 일상생활사: 역사인류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3(1), 31-50.
- 김성희, 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신정
- 김송미, 1997, 광주시 주부의 개인 속성과 일상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2(2), 217-228.
- 김효정·김미라, 2001, 기혼여성 재택근무와 직장근무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6), 25-39.
- 구성열 외, 1999, 경제학 대사전, 박영사.
- 권남훈·김종일, 2002, 최근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과 정보화의 역할, 한국경제연구, 8, 61-84.
- 문기상, 1995, 일상생활사, 역사교육, 57, 55-79.
- 문숙제·윤소영·김은희, 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6.
- 박규택, 2000, 사회·경제 공간규모의 관점에서 의한 한국경제의 대량실업문제, 한국공간환경, 1(2), 29-43.

- 박순호, 2002, 초등학생 일상생활활동의 시·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4), 492-512.
- 박순호·김은숙, 1998,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의 시·공간적 특성, 한국인구학, 21(2), 113-143.
- 박승규·김일기, 2001, 일상생활에 근거한 지리교과의 재개념화, 대한지리학회지, 36(1), 1-14.
- 소병철, 2002, '노동 종말' 시대의 노동, 자율적인 삶의 사회철학을 위한 예비적 고찰, 철학, 73, 213-234.
- 손애리, 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안정옥, 2002, 문화사회와 탈노동사회, 창작과 비평, 118, 401-415.
- 양세정·김태은, 2002,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87-98.
- 이기동, 2001, 산업의 정보화와 산업발전, 집문당.
- 이연숙 외 다수, 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 이종선, 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유연화의 패러독스, 한국사회학, 36(3), 25-45.
- 이종희·이연숙, 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 이재하, 1985, 대학생의 일상행태에 관한 시간지리적 연구, 홍순완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399-421.
- 이창운, 1982, 도시활동에 관한 시·공간적 연구 - 주부의 가외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우·김은숙, 1997, 일상 생활활동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사회과학, 9, 133-158.
- 이효수, 2002,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경제학연구, 50(1), 243-274.
- 이윤호, 2000, 성남시 여성의 생활세계를 통해서 본 지역의 차별적 생성과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5(4), 599-619.
- 임석희, 2002,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재구조화와 지역격차,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4), 513-528.
- 양신규·류동민, 2000, 신경계와 벤처 현상의 이해, 경제와 사회, 47, 10-45.
- 전경숙, 1989, 시간지리학의 개념과 응용, 지리학총, 17, 83-94.
- 정이환, 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 36(1), 83-112.
- 최남숙·유소이, 200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16.
- 최종옥, 1993,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비판'에 대한 비판적 소론, 어문학 논총,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99-319.
- 한국방송공사, 1981, 1985, 1990, 1995, 2000,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국은행, 1998, 1985 - 95년중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변화, 조사통계월보, 9, 36-51.
- 홍두승·김병조·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Aglietta, M., 1998, Capitalism at the turn of the century: regulation theor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New Left Review*, 232, 41-90.
- Aoyama, Y. and Castells, M., 2002,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al society: employment and occupational structures of G-7 countries, 1920-2000,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1(1/2), 123-159.
- Becker, G.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3), 492-517.
- Biddle, J.E. and Hamermesh, D.S., 1990, Sleep and the allocation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922-943.
- Bittman, M. and Wajcman, J.,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189.
- Cornwall, J., 1980, Modern capitalism and the trend toward deindustri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Issues*, 14(2), 275-289.
- Elder Jr. G.H.,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1), 4-15.
- Fogel, R.W., 1999, Catching up with the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89(1), 1-21.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Oxford

- University Press, Oxford.
- Gronau, R., 1973,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time: the value of the housewives'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63(4), 634-651.
- Hägerstrand, T., 1970,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4, 7-21.
- Hägerstrand, T., 1989, Reflections on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66, 1-6.
- Hamermesh, D.S., 1998, Work or leisure: a changing deci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8(2), 321-325.
- Jorgenson, D.W., 2001,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U.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1-32.
- Juster, F.T. and Stafford, F.P., 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2), 471-522.
- Minge-Klevana, W., 1980, Does labour time increase with industrialization? a survey of time allocation studies, *Current Anthropology*, 21(3), 279-298.
- Pred, A., 1981, Production, family, and free-time projects: a time-geographic perspective on the individual and societal change in nineteenth-centur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7(1), 3-36.
- Schwartz, M. and Zukin, S., 1988, Deindustri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structural convergence, institutional contrast,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7, 293-320.
- Spiegel, M.R., 1988, *Statistics*, McGraw-Hill, New York.
- Sullivan, O. and Gershuny, J., 2001, Crossnational changes in time-use: some sociological (hi)stories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2), 331-347.
- Szalai, A. ed., 1972,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Mouton, Hague.
- Thomas, K., 1964, Work and leisure, *Past and Present*, 29, 50-97.
- Thompson, E.P., 1964,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 56-97.
- (접수 : 2003. 1. 30, 채택 : 2003. 2. 25)